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59

JCCT 2019-5-8

영화 <동주>(2015)에 표상된 윤동주 시 활용양상 연구

A Study on the Use Pattern of Yun Dong-Ju in the movie <Dongju>

손미영

Son, Mi-young

요약 본 연구는 이준익 감독의 2015년작 <동주>를 통해서 영화에서 시 텍스트가 어떻게 활용되며, 이로써 어떠한 서사적이고도 영상적 효과를 얻어내었는가를 검토한다. 이 영화는 시인 윤동주를 중심인물로 내세우고, 그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있다. 영화 <동주>에서는 윤동주의 시를 영화의 서정성을 극대화하는 장치이자, 인물의 운명과 내면의 변화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즉, 영화 <동주>는 윤동주의 시를 활용함으로써, 영화 속 인물의 내적 변화와 감성을 미적으로 수준 높게 형상화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인 윤동주를 평범한 문학청년으로 조명함으로써, 문학책 속에 박제되어 있던 윤동주를 고뇌하는 청년의 한 표상으로 이미지화한다. 이는 현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무게에 대한 위로이자, 역사를 살아가는 한 개인의 문제를 조망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화 <동주>는 영상 매체를 통해 시와 시인의 초상, 그리고 시인의 시대를 다채롭게 그려낸 주요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영상과 함께 전달되는 문자 텍스트로서의 '시'는 영상의 서정성을 더욱 극대화하였으며, 높은 미학적 성취까지로 이어졌다. 시와 시인을 통해 역사와 개인, 문학과 현실이라는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주요한 텍스트라 평가할 수 있다.

주요어 : 문학, 시, 영화, 영화 <동주>, 윤동주, 통섭, 표상, 이미지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cinematic texts are used in movies through Lee Jun-ik's 2015 film, <Dongju> and what narrative and visual effects are obtained through them. This film portrays poet Yun Dong-ju as a central figure and chooses to reconstruct his life. The movie, <Dongju>, used Yun's poetry as a device to maximize the lyricism of the film and to suggest a change in the fate of the character and the inside.

In other words, <Dongju> uses Yun Dong-ju's poetry to aesthetically express the inner change of the characters in the film and the sensitivity of the film. Through this, I visualize Yun Dong-ju as poet Yun Dong-ju, a poet who was stuffed in literary books, as a normal literary youth. It is also a reminder of the weight of the reality that the present youth is experiencing and the problem of an individual living in history. In this respect, the movie <Dongju> is a major text that depicts the poetry and poetry of the time, and the age of poet through the media. 'Poetry' as the text of the text delivered with the image maximized the lyricism of the image and led to high aesthetic achievement. Through poetry and poetry, it can be regarded as the main text approaching the problems of history, individual, literature and reality.

Key words : Literature, Poem, Cinema, Korean Cinema, <Dongju>, Yun Dong-ju, Convergence

*정회원,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 (주저자)
접수일: 2019년 2월 15일, 수정완료일: 2019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8일

Received: February 15, 2019 / Revised: March 13, 2019

Accepted: April 08, 2019

*Corresponding Author: myshon@kw.ac.kr

Dept. of Ingenium, Kwang woon Univ, Korea

I. 서론

윤동주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이다. 때문에 영상이나 음악, 극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윤동주의 시와 그의 생애는 주요한 소재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윤동주의 시 작품이 문학이 아닌 다른 매체와의 통섭을 통해 어떻게 제시되고 있으며, 시인의 표상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세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예술이 다양한 장르들의 통섭을 보여주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1]를 감안한다면, 윤동주의 표상이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고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와 영화가 어떻게 연관을 맺고 이로써 문학의 표상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15년에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를 주요한 해석의 대상으로 삼아 윤동주의 시가 영상 매체에서 활용되는 방법과 시인의 표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영화 <동주>는 영화적 완성도를 비롯하여, 윤동주의 삶에 대한 성실한 조사를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냈다. 이 영화는 적은 상영관에도 불구하고 1,176,300명이라는 비교적 높은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다수의 평자들로부터 준수한 평가를 얻어낸 바 있다. 그간 윤동주에 관련한 영상 매체들이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 치우쳐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의미 있는 영상 텍스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영화 <동주>는 윤동주 시와 영화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한편으로, 그의 시가 지닌 서정성을 영상으로 훌륭히 구현해내었다. 따라서 윤동주의 영상화에 관한 몇 편의 의미 있는 논문들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시인 윤동주의 실제 삶과 영화 <동주>를 비교 분석하거나, 영화적 관점에서 시인 윤동주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검토한 연구가 있다.[2]~[6] 그런데 영화 <동주>가 윤동주의 시를 영화 곳곳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윤동주의 시가 영화 속에서 활용되는 방식과, 이 방식이 시인의 영상화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관한 세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2015)를 통하여 윤동주의 시가 영화 속에서 제시되고, 이로써 어떠한 서사적, 서정적 효과를 얻어내고 있는가를 세밀히 살필 것

이다. 특히 영화 <동주>에서 가장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두 편의 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 작업은 시 작품이 영화 속 장면들과 통섭하고 서사적 효과를 얻어내는 장면들을 시의 내용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검토를 통하여 영화라는 미디어 텍스트가 윤동주 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하며, 영화적으로 활용하는 한편으로, 윤동주라는 시인을 어떻게 형상화하여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형식의 장르가 하나의 장면에 혼합되고 병치되는 흥미로운 양상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

II. 윤동주 시와 영화 <동주>의 시퀀스 분석

1. 「쉽게 씌워진 시」와 서사의 분기점

영화 <동주>에서 윤동주의 시는 총 14편이 배치되어 있다. 이 시편들은 대부분이 대중에 잘 알려진 윤동주의 대표작들이다. 이 시편들은 영화의 내용과 어우러지며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을 감성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한다. 예컨대 문과 진학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동주’의 고뇌를 보여주는 시퀀스에서 제시되는 시 「내일은 없다」는 집안에 반대에 부딪혀 낙담한 ‘동주’(강하늘 분)의 내면을 드러내며, 연희전문학교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제시되는 시 「새로운 길」은 희망을 갖고 진학하는 그의 심정과 이동 장면이 겹쳐지며, 서정성을 더한다. 이처럼 영화 <동주>에서 윤동주의 시는 서정적 감성을 더하고, 영화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기여한다.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중략)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물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윤동주, 「쉽게 써워진 시」 부분[7]

열 네 편의 시 중 위의 시 「쉽게 써워진 시」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몇 편의 시 중 하나이다. 여러 장면에서 걸쳐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몽규'를 비롯한 유학생들의 결의와 이 시를 써내려가는 장면의 교차는 영화 <동주>의 서사가 절장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제시하는 까닭이다. 영화 <동주>에서 이 시는 일본 형사의 물음에 의해 처음 제시된다. 일본 형사는 '동주'를 심문하면서 위에 인용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구절을 읊는다. 형사는 북간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불온한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런 시를 쉽게 쓴 너를 보면 세상에 대한 너의 태도가 분명히 읽혀진다"고 다그친다.

그런데 이 시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시퀀스는 공산당에 염증을 느낀 '몽규'와, 그런 '몽규'에게 경성으로 가자고 권유하는 '동주'의 장면이다. 즉, '동주'가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으리라는 형사의 확신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도리어 윤동주는 송몽규의 글을 읽어보았느냐고 되묻고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암살자로 보입니까?"라고 외친다. 이 영화는 '몽규'가 이윤을 암살하는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작중 '동주'의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실제 역사상 이윤을 암살한 것이 은진 중학 출신의 현철진과 이익성임을 감안한다면, '동주'의 외침은 도리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로서 관객에게 전달된다. 즉, 이처럼 아름다운 글을 쓰는 사람이 암살에 가담할 리 없으며, 윤동주의 민족운동은 또한 당대 식민지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의 발로라는 것이다.

영화 <동주>는 윤동주를 독립운동에 가담한 투사나 강직한 청년의 이미지보다는 '문학청년'의 이미지로 그려내고자 한다. 「쉽게 써워진 시」의 한 부분을 인용하며 이런 시를 쓰는 '동주'의 사상이 온건할 리 없다고 확신하는 영화 속 형사의 대사에도 극 중 '동주'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시 「병원」과 함께 알 수 없는 주사를 맞는 시퀀스로 이동하면서 윤동주라는 한 인물이 살아내야 했던 현실과 그가 느꼈을 참담함을 보여준다. 영화가 시 「쉽게 써워진 시」를 일종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장면들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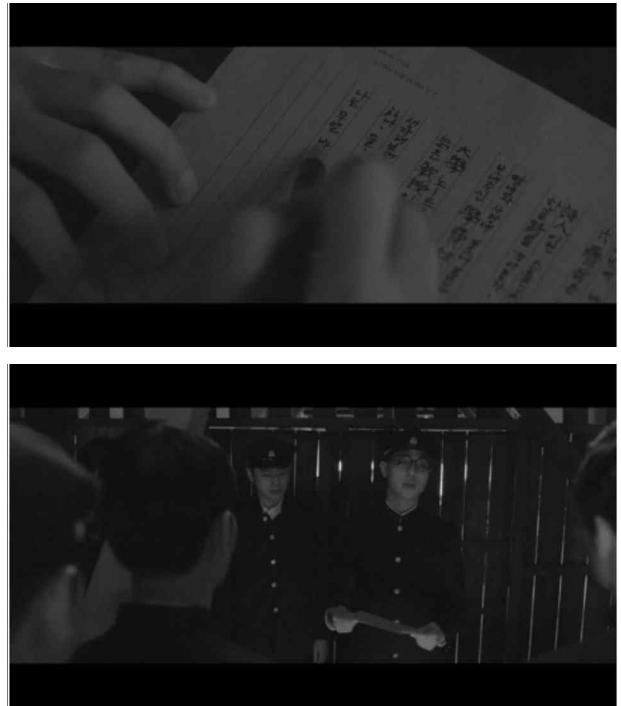


그림 1. 영화 <동주>의 장면들
Figure 1. Scenes of <Dongju>

위의 장면은 '동주'가 「쉽게 써워진 시」를 적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장면은 '몽규'가 청년들을 규합하여 혁명을 역설하는 시퀀스와 교차 편집되어 있다. '동주'가 읊는 시의 1연과 2연,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육첩방은 남의 나라//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한 줄 시를 적어볼까"가 제시된 직후에 이어지는 것은 '몽규'의 대사이다.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를 적는 '동주'와 의식 있는 개인이 '폭탄'이 되어야 한다는 '몽규'의 연설은 오버랩되며 '동주'와 '몽규'의 서로 다른 행보가 장면의 교차를 통해 제시된다. 특히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는 시의 부분이 내레이션을 통해 제시된 직후에는 혁명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몽규'의 발언과 대치되며 시를 쓰는 것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동주'의 감정을 관객들로 하여금 짐작케 한다. 무엇보다도 「쉽게 써워진 시」가 윤동주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최초의 악수」라는 시어에 대한 잘 알려진 해석들은 이 영화의 서사 변화와 맞물리며 영화 속 '동주'의 삶이 중요한 분기점에 이르렀음을 암시한다.

특히 기존 논의들[8]~[9]이 그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인 윤동주가 마침내 그 자신과의 화해하였다고 평가하는 이 시의 마지막 연,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는 부분은 자연스레 심문 중인 ‘동주’의 서로 맞잡은 손의 장면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영화의 연출은 ‘동주’가 그 자신과의 화해를 마침내 이루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 화해의 순간을 영화는 자술서를 앞에 둔 ‘동주’와 ‘몽규’의 모습으로 드러낸다. 형사의 말처럼 ‘몽규’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그 자신의 생을 부끄러워하며 ‘동주’는 서명을 거부한다. 자술서에 서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동주’의 고백은 ‘부끄러운’ 자신에 대한 인정이자, 그간 침묵하였던 영화 속 ‘동주’가 보여주는 최초의 저항이다. 또한 동시에 이 외침은 영화가 포착하고 있는 시인 윤동주와 식민지 시기 청년의 내면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여러 장면과 영화 속 시간에 걸쳐 제시되는 윤동주의 시 「쉽게 써워진 시」는 이처럼 세상에 대응하는 ‘동주’의 내면과 그 변화의 분기점을 드러내는 데에 활용된다. 영화 속에서 이 시는 ‘동주’가 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 창작의 순간을 보여주며, 동시에 민족운동의 근거로서 형사에 의해 제시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연의 “최초의 악수”는 ‘동주’가 그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굴레 지워진 식민지 치하의 청년이라는 비극적 역할마저도 인정하였음을 암시한다. 즉,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괴로워서” 서명한다는 ‘몽규’와 달리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다는 ‘동주’의 저항은 식민지 하의 조선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비극마저도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한 청년의 내면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영화 <동주>는 ‘동주’와 ‘몽규’의 태도 차이를 차별 없이 조명한다. 그리고 영화의 시선은 이들 모두를 단지 식민지시기라는 비극적 시대에 태어났을 뿐인 평범한 조선의 청년이었음을 드러낸다.

2. 「별 헤는 밤」과 <동주>의 서정성

「쉽게 써워진 시」가 ‘동주’의 내면 변화를 드러내는 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면, 윤동주의 주요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별 헤는 밤」은 윤동주 시세계의 아름다움과 영화 <동주>가 보여주는 서정적인 장면을 극대화하는 데에 활용된다. 「별 헤는 밤」이 가장 먼저 제시된 시퀀스는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병색이 완연한 ‘동주’

가 감옥의 창문을 통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부분에서이다. 눈 밑에 병색이 완연한 ‘동주’의 모습과 순수한 목소리로 읊어지는 시의 제목, 「별 헤는 밤」은 ‘동주’의 비극적 모습과 대치되어 제시된다. 이어 내레이션을 통해 제시되는 「별 헤는 밤」의 1연과 2연과 함께 카메라는 그가 바라보는 창살 너머의 밤하늘로 뻗어나간다.

季節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來日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靑春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윤동주, 「별 헤는 밤」, 부분[7]

마치 영화 속 ‘동주’의 정신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처럼 쇠창살을 넘어 밤하늘로 멀리 뻗어가던 카메라는 다시 아래로 천천히 하강하면서 연회전문 시절의 ‘동주’와 ‘몽규’를 비춘다. 강처중과 송몽규, 그리고 이어진과 함께 동인지를 편집하고 있는 ‘동주’의 모습은 시가 고백하듯 “아무 걱정도 없이” 문학만을 꿈꾸던 청년이다. 이 장면에서 제시되는 ‘동주’의 고뇌에 찬 표정과 ‘몽규’와의 언쟁은 ‘동주’가 ‘몽규’에게 느끼는 미묘한 질투의 감정과 자신의 시에 관심을 보이는 ‘여진’을 향해 싹트기 시작하는 감정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다룬 적 없는 ‘동주’와 ‘몽규’의 언쟁은 삶과 문학에 대한 두 인물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시가 현실을 바꾸는 데에 기여할 수 없다는 ‘몽규’의 부정적 시각에 ‘동주’는 처음으로 시야말로 생각과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학 장르임을 역설하며 화를 낸다. 이 장면은 행동으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몽규’가 선택하는 이후의 행보와 문학에 대한 꿈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동주’의 방향성을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두 사람의 언쟁으로 인해 무거워진 분위기를 상쇄하기 위한 산책으로 이어지면서 영화의 분위기 또한

전환시킨다. 시 「별 헤는 밤」은 쇠창살 너머로 바라보는 밤하늘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동주’의 비극적 상황과 연희전문 시절의 아름다운 장면들로 이어짐으로써 장면 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장면의 전환은 후쿠오카 감옥에 갇혀 생체실험을 당한 끝에 절명한 시인의 운명을 지나치게 비극적이지 않게 관객들에게 제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영화는 운동주의 시 중 가장 잘 알려진 시이자 그의 순수한 내면세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 「별 헤는 밤」을 통해 ‘동주’의 비극과 그가 지나온 아름다운 시절을 동시에 제시한다. 영화 <동주>에서 가장 서정적이고도 아름다운 장면이라 할 수 있는 ‘여진’과 ‘동주’의 밤산책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다. ‘여진’은 ‘동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고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동주’의 대답은 자연스레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밤길을 걷는 ‘여진’과 ‘동주’의 장면에서 시 「별 헤는 밤」의 다음 부분이 덧붙여진다.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그림 2. 영화 <동주>의 장면
Figure 2. Scene of <Dongju>

이 장면에서 제시된 운동주의 시는 그 순서가 감독의 의도에 따라 선택, 배치된 것이다. 시 「별 헤는 밤」을 이끌었던 시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은 5연으로, 위에 인용된 시의 4연보다 뒤에 놓여 있다. 즉, 영화 <동주>는 자연스레 「별 헤는 밤」이라는 시를 등장시키기 위해 운동주의 시의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한다. 이 때 영화는 시 속의 내용들과 영화 속의 풍경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영화 <동주>가 지닌 서정성

을 극대화한다. 카메라는 인용한 시의 부분과 함께 별이 빼곡히 빛나는 밤하늘을 비추고 있으며, 그 아래를 걷는 ‘동주’와 ‘여진’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감정이 각별한 것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음을 관객들이 파악하게 한다. ‘동주’의 첫사랑을 「별 헤는 밤」이라는 시,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의 모습을 통해서 영화 <동주>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서정적인 장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진’에 대한 ‘동주’의 감정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시의 내용과 연결되면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운동주의 시가 지닌 서정성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도 감각하게 된다. 특히 진술하였다시피 이 장면이 영화 <동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임을 감안하면, 운동주의 시를 가장 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또한 이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동주>가 이 장면에서 비추고 있는 것은 시인이 아직 되지 않은 평범한 문학청년 ‘동주’의 순수한 첫사랑과 그가 가장 행복했을 시기이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시 「별 헤는 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서, 영화 <동주>는 운동주의 시가 지닌 서정성을 극대화하는 한 편으로 영화의 순수한 분위기를 지탱하는 데에 운동주의 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화는 결말에 이르러 ‘별」을 다시 등장시킴으로써 시인 운동주가 겪어낸 삶의 비극성마저도 아름다운 서정의 감성으로 승화시킨다. 이 때 제시되는 시 「서시」의 마지막 연인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별을 헤는 밤의 아름다움과 비극성을 ‘운동주’라는 이름의 청년의 운명과 대치시킴으로써 과도하지 않은 비극적 결말을 제시한다. 운동주의 시의 서정성과 ‘별」이라는 키워드가 지닌 아름다움을 통해 시인 운동주가 겪어야 했던 시대의 비극을 과장하거나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장면 분석들은 영화 <동주>가 운동주의 시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직접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영화 속 인물들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한편으로 영화가 지닌 서정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운동주의 시는 서정적인 이미지와 ‘부끄러움」이라는 시대적 비극을 내면화한 단어로써 식민지 시기 한 문학청년의 맑고도 아름다운 시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영화는 다양한 시퀀스들에서 운동주의 시를 활용함으로써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서와 순수한 청년의 비극적 운명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III. 영화의 구성과 운동주 표상

영화 <동주>가 보여주는 시인의 모습은 회고록을 비롯하여 관련 연구들을 참조한 흔적이 역력하다. 예컨대 교모를 쓰고 가라는 아버지의 외침에 주머니에 넣었던 모자를 꺼내어 쓰는 세부묘사는 영화가 다양한 참조 자료를 통해 운동주를 성실히 묘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영화의 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표상하고 있는 운동주는 여전히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이는 운동주가 지상에 머무른 짧은 시간만큼 그가 남긴 시가 부족한 까닭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한 권의 시집만 남긴 청년이기에 그는 한국인의 뇌리에 오랫동안 순수한 청년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이 영화는 시작 부분부터 형사에게 심문 당하는 ‘동주’의 모습을 제시한다. 심문에서 시작해서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이 영화의 구성은 운동주를 바라보는 영화의 시선을 내포하고 있다. 심문과 고백으로 이어진 구성은 영화 속 인물인 ‘동주’의 삶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영화적 구성이다. 하지만 동시에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그 자신의 내면을 토로하게 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인물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세계와 이상을 청취하도록 한다. 결국 이 영화는 결말부에서 제시된 「서시」의 내용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고 괴로웠던 순수한 영혼의 문학청년으로서의 운동주를 조명하고자 한다. ‘부끄러움’으로 진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동주’의 저항은 민족 운동에 관한 투신이 아니라, 내면적 성찰과 진실함으로 생을 살아가고자 하였던 한 청년이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결말이었음을 영화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순수하지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했던 문학청년의 이미지는 영화 <동주>가 표상하고자 하였던 시인 운동주의 모습이다. 영화의 포스터와 흑백으로 촬영된 장면들은 운동주의 흑백 졸업사진과 연결되며 그가 지닌 ‘청년’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킨다. 교복을 입은 ‘몽규’와 ‘동주’가 사진관에서 지을 법한 포트를 취하고 있는 포스터 또한 이들의 졸업사진을 연상케 한다. 특히 영화가 끝난 뒤, 엔딩 크레딧과 함께 보여주는 ‘동주’와 ‘몽규’의 행복했던 시절은 식민지 치하의 엄혹

한 현실 속에서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되었으나, 결국 민족 운동에 투신한 ‘몽규’나 문학에 집중한 ‘동주’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청년’이었음을 드러낸다.

물론 영화가 보여주는 이러한 운동주의 표상은, 기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수한 영혼을 지닌 문학청년으로서의 운동주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판적인 해석이다. 영화가 보여주는 운동주의 초상은 식민지시기를 단순히 항거하는 지사 혹은 열사와 현실에 타협하는 인물로만 구성된 편협한 시선을 지양하게 한다. 비록 후쿠오카에서 옥사하였으나, 운동주라는 인물이 그저 평범한 문학청년이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비극적 역사에 놓인 한 인간의 모습과 그 삶의 의미를 조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순수한 영혼을 지키고자 하였던 한 청년의 표상을 통해 각박한 현대 사회의 청년들을 향하여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운 시를 피워낼 수 있다는 위로를 건네고자 하였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영화 <동주>는 문학을 꿈꾸는 평범한 청년의 표상을 통해 시대와 개인의 문제로까지 관점을 확대시킨다. 영화가 운동주의 비극적 죽음이 아니라 그가 남긴 아름다운 시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는 것은 이러한 까닭인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운동주의 시가 영화에서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문학과 영상이 통섭하는 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2015)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텍스트는 그 규모에 비해 대중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이끌었으며, 청년 운동주를 성실히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동주>에서 운동주의 시는 영화의 서정성을 극대화하는 장치이자, 인물의 운명과 내면의 변화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본고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된 두 편의 시 「쉽게 써워진 시」와 「별 헤는 밤」을 세밀하게 해석함으로써 운동주의 시와 영화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쉽게 써워진 시」는 영화가 운동주의 시를 활용하는 방법 중, 인물의 변화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쉽게 써워진 시」는 영화의 초반부에서부터 독립운동의 증거로 형사의 대

사를 통해 등장하여, 이후 유학생들을 소집한 ‘몽규’의 장면과 교차 편집 및 제시된다. 이 장면에서 시는 영화 속 ‘동주’의 운명이 비극으로 치닫게 되리라는 것과 그가 내적 진실성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그 자신을 용서하는 “최초의 악수”를 보여준다.

한편 「별 헤는 밤」은 영화의 서정성을 극대화하는 장면에서 활용된다. 이 시는 감옥의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별이 빛나는 밤과 함께 제시된다. 밤하늘로 향하는 카메라의 동선은 자연스레 연회전문 시절로 이어지며 시가 장면 전환에 자연스레 개입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이후 이어지는 ‘여진’과 ‘동주’의 밤 산책은 <동주>에서 가장 낭만적인 장면으로서, 시를 읊는 인물의 내레이션과 함께 서정성을 극대화한다. 가장 비극적 장면에서부터 가장 낭만적인 장면으로 이어지는 영화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은 「별 헤는 밤」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까닭일 것이다. 이로써 영화는 ‘동주’의 비극적 상황을 과장하거나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관객들로 하여금 그 비극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높은 수준의 영상미를 이끌어낸다.

이처럼 영화 <동주>는 운동주의 시를 활용함으로써, 영화 속 인물의 내적 변화와 영화의 감성을 미적으로 수준 높게 형상화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인 운동주를 평범한 문학청년으로 조명함으로써, 문학책 속에 박제되어 있던 운동주를 고쳐하는 청춘의 한 표상으로 이미지화한다. 이는 현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무게에 대한 위로이자, 역사를 살아가는 한 개인의 문제를 조망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주>는 영상 매체를 통해 시와 시인의 초상, 그리고 시인의 시대를 다채롭게 그려낸 주요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영상과 함께 전달되는 문자 텍스트로서의 ‘시’는 영상의 서정성을 더욱 극대화하였으며, 높은 미학적 성취까지로 이어졌다. 시와 시인을 통해 역사와 개인, 문학과 현실이라는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주요한 텍스트인 것이다.

References

- [1] Son, Mi-young, A Study on the Cooperative Patterns of Literature and Drama, 2017.
-Focused on <Dokebi, The Lonely and Great God>, <Gentlemen’s Dignity>
- [2] Kim, Eung-gyo, Movie Dongju and Te Aura of

Yun Dong-ju, 2016.

- [3] Ji, Hyun-bae, Reproduction Codes for Cultural Contents of Yun Dongju’s Poetry, 2017.
- [4] Kim, Myung-seok, Dong-ju and Mong-gyu, The Age of Shameful Youth, 2018.
- [5] Moon, Sun-young, A Representation of Yun Dong-ju in Visual Image Contents, 2018.
- [6] Yang, Jin-oh, A Study on The Birth of a Poet-Centered on the Movie <Dongju>
- [7] Yun, Dong-ju, Sky, Wind, Stars and Poem, 1948.
- [8] Ryu, Yang-seon, Time and Eternity in Yun, Dong-ju’s Poetry-Analyzing A Poem I’ve Written Easily, 2012
- [9] Kim, Eung-gyo, Five Poem of Yun Dong-ju at the age of Rikkyo University in Japan, 2012.

※ 이 논문은 2019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